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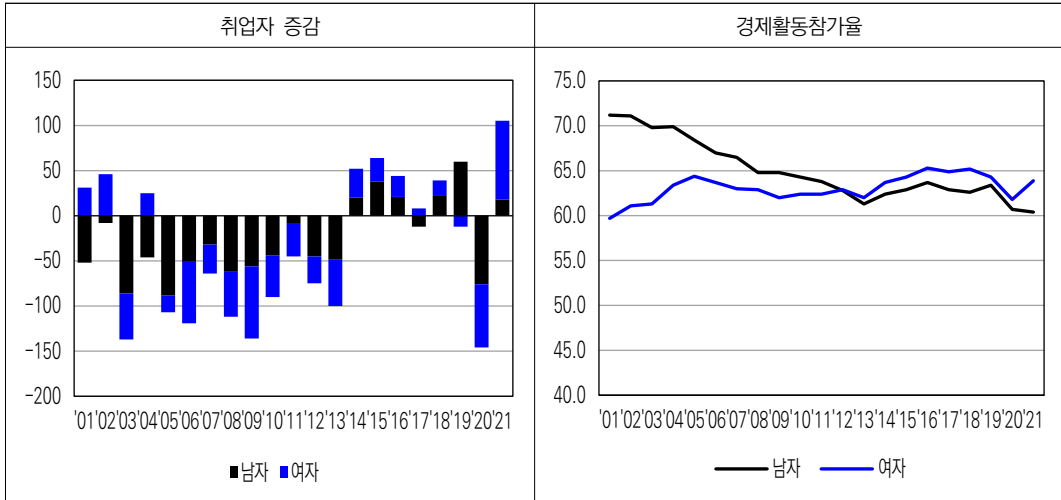
## 20대 청년층 고용과 상대적 빈곤율(1인 가구 기준) 추이

-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큰 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하방압력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은행(2022년 8월)이 발표한 2022·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 2.1%로 연초 전망치보다 0.4%p 하향 조정된 수치임.
- 이러한 경기 둔화 속에서도 2022년 주요 노동시장 지표는 상당한 호조를 보임.
  - 2022년 2사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88만 명 증가함. 고용률은 40대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섬. 특히 2022년 2사분기 20대 청년층(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사분기 대비 3.3%p 상승함(청년층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5.0%p 상승).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성별 노동시장 움직임은 다소 차이가 확인됨(그림 1 참조).
  - 2000년대 초까지도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표 간 성별 격차가 컸으나, 상반된 움직임으로 격차를 좁혀오다 2011~12년에는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더 높아지면서 성별 격차가 역전되었고, 이 흐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과 진정이 거듭되면서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던 2020년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선 호조세를 보임.
- 청년층의 취업자 수 변동을 분해한 결과,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 변동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기여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청년층 여성의 노동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적극적으로

로 구직활동을 한 결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용직으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20대 청년층의 성별 고용지표(취업자증감·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변동 분해

		연간				해당연도 2사분기			
		2009	2010	2020	2021	2019 2/4	2020 2/4	2021 2/4	2022 2/4
전체	△ln(취업자 수)	-0.035	-0.024	-0.040	0.029	0.006	-0.041	0.039	0.043
	△ln(인구)	-0.019	-0.024	0.003	0.000	0.009	0.003	0.003	-0.020
	△ln(경제활동참가율)	-0.008	0.000	-0.043	0.016	0.004	-0.051	0.028	0.040
	△ln(1-실업률)	-0.009	0.001	-0.001	0.014	-0.007	0.007	0.008	0.023
여자	△ln(취업자 수)	-0.039	-0.023	-0.037	0.046	-0.011	-0.043	0.053	0.054
	△ln(인구)	-0.020	-0.027	0.002	-0.002	0.003	0.003	0.000	-0.021
	△ln(경제활동참가율)	-0.014	0.006	-0.040	0.033	-0.005	-0.054	0.041	0.062
	△ln(1-실업률)	-0.006	-0.003	0.001	0.015	-0.010	0.008	0.013	0.012
남자	△ln(취업자 수)	-0.030	-0.024	-0.042	0.010	0.025	-0.038	0.024	0.032
	△ln(인구)	-0.017	-0.022	0.003	0.002	0.014	0.004	0.007	-0.020
	△ln(경제활동참가율)	0.000	-0.008	-0.044	-0.005	0.014	-0.047	0.014	0.018
	△ln(1-실업률)	-0.013	0.006	-0.002	0.013	-0.003	0.005	0.003	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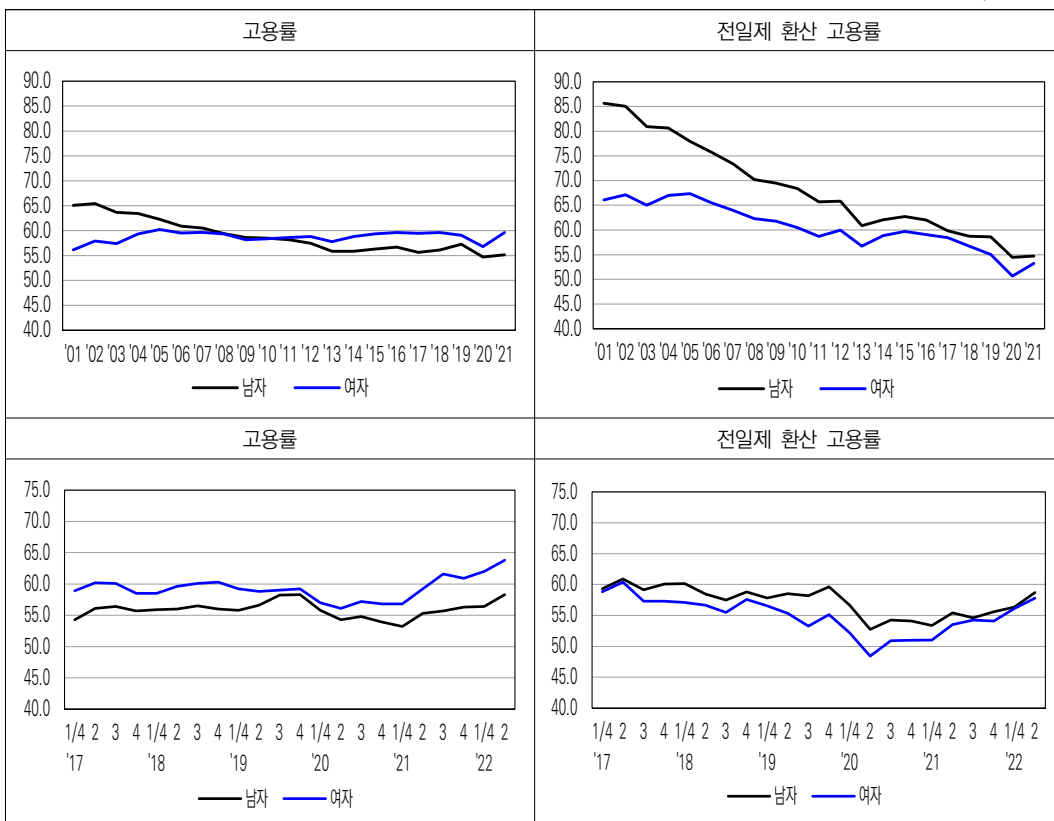
주 : 취업자 수 증감 분해는 '△ln(취업자 수) = △ln(생산가능인구) + △ln(경제활동참가율) + △ln(1-실업률)' 식을 이용한 결과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0년 이후 청년층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OECD에서 성별 노동참여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발표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 방식을 청년층에 적용해 보면 남녀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며, 청년층 여성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청년층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1)</sup>

- 청년층 여성의 취업시간을 고려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청년층 남성에 비해 낮은 것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 [그림 2]에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2020년의 청년층 여성의 주 40시

[그림 2]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 추이(연간·분기별)

(단위 : %)



주 :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취업자를 취업자 1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취업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고용률(이하 고용률)을 근거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인 취업자(=전일제, 풀타임 취업자)를 취업자 1명으로 간주함. 우리나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간 미만 취업자는 취업자의 28.3%로 청년층 남성 21.6%에 비해 높았고, 2021년까지 청년층 남녀 모두 주 40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함.

- 청년층의 최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분기별로 보면 청년층 남녀 모두 2020년 2사분기에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층 여성의 고용률 상승폭이 두드러져 전일제 환산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분기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최근 상승하는 데는 주 4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청년층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 여성의 주 4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점과 청년층 여성의 고용이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주 40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안 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청년층의 노동지표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개선·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전년동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2022년 2사분기 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으며, 실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2.9배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되면서 청년층 소득불평등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2〉 일하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배)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상대적 빈곤율	10.7	7.3	10.2	8.6	6.5	5.1	9.5	14.3	8.2	4.5
소득 5분위 배율	4.5	3.3	3.7	3.2	3.6	3.1	3.5	3.8	3.5	2.9

주: 1) 취업상태인 20대 청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물가를 반영한 실질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2022년 2사분기 청년층의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된 배경에는 청년층 고용이 크게 증가한

2)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시의성 있는 자료임. 본고는 취업상태인 20대 청년층 중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을 파악하고 있음. 상대적 빈곤율은 취업상태인 청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일하는 청년 1인 가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비율을 의미함.

점, 그것도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한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청년층 1인 가구의 1분위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인 5분위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남. **KL**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